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CNBC: 트럼프 경제 지지율 65% 부정 평가
- Bloomberg: 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3개월래 최저

[미국 금융]
- CNBC: 중동 긴장 등으로 미 국채 금리 하락…10년물 5.03%
- Bloomberg: 미 중간선거 향방과 증시 여파
- JP 모건: AI 투자 붐과 자금 조달 장벽

[오일]
- WSJ: 계속된 중동 긴장에 유가 2%대 상승…브렌트유 $111 돌파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유가 급등에 아메리칸항공 실적 전망 하향
- Bloomberg: Affirm, 샘스클럽과 '선구매 후불제(BNPL)' 독점 계약
- CNBC: 아멕스 카드로 에어비앤비 예약… 포인트 적립도
- WSJ: 프라다, 명품 시장 침체로 매출 성장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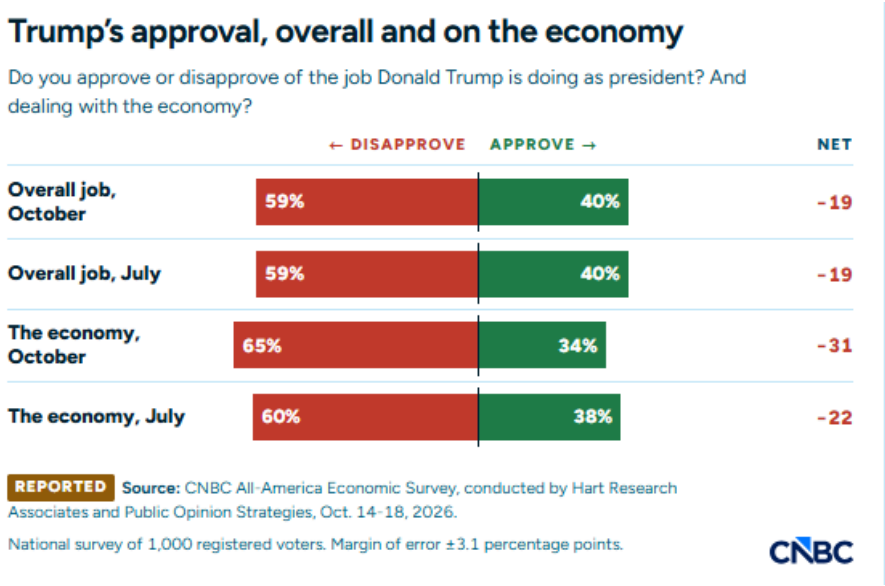
[KMI 공급망 브리핑]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CNBC: Trump’s approval rating on economy hits all-time low as midterm looms: CNBC survey
트럼프 경제 지지율 65% 부정 평가

-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국정 운영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 오늘 목요일 'CNBC 올 아메리카 경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부정 평가했다. 공화당원 사이에서도 최근 경제적 비관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인 10명 중 8명(80%)이 현재 경제 상황을 '보통(fair)' 또는 '나쁨(poor)'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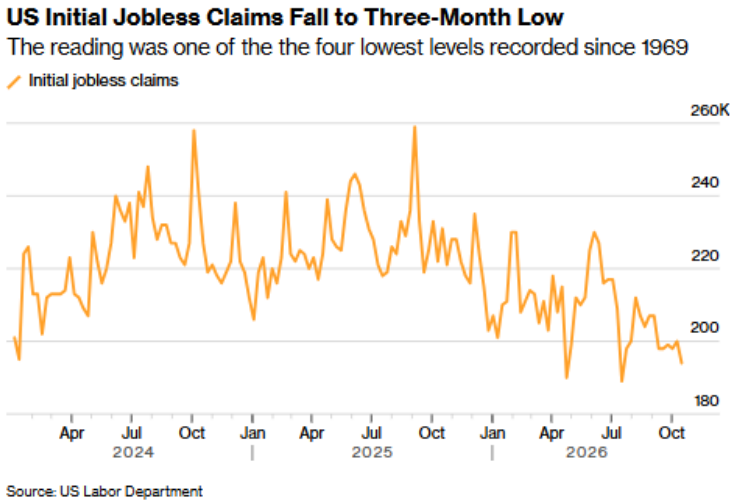


기사

Bloomberg: US Initial Jobless Claims Fall to Three-Month Low of 194,000
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 3개월래 최저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며 견조한 고용 시장을 보여주었다.
- 22일 목요일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17일 마감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전주 대비 6천 건 줄어든 19만 4천 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망치(20만 건)를 밑도는 수치이자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에 가깝다.
- 지속적인 청구 건수는 2만 5천 건 증가한 173만 건으로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이베이, 크로거 등 일부 대기업의 감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의 대규모 해고 조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미국 금융]

CNBC: Treasury yields fall as investors weigh Middle East tensions and assess fresh jobs data
중동 긴장 등으로 미 국채 금리 하락…10년물 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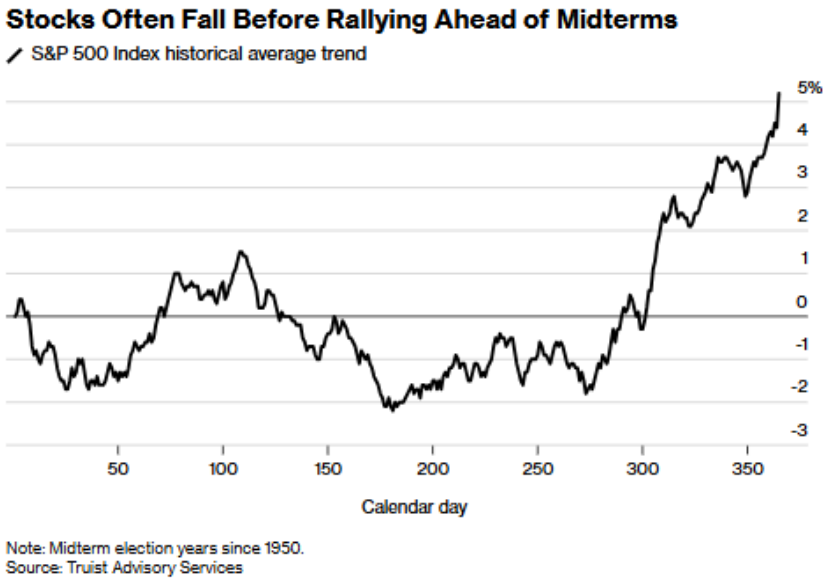
- 오늘 목요일 미 국채 금리가 중동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지표를 주시하는 투자 심리 가운데 하락했다.
- 대출 금리 기준인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11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내린 5.032%를 기록했다.
- 연준의 단기 금리 전망을 반영하는 2년물 금리는 9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떨어진 4.725%, 지정학 리스크에 민감한 30년물 금리는 8 베이시스 포인트 넘게 내린 5.349%에 거래됐다.

SYMBOL	COMPANY	YIELD	CHANGE
US10Y	U.S. 10 Year Treasury	5.011%	-0.135
US1M	U.S. 1 Month Treasury	3.975%	-0.008
US1Y	U.S. 1 Year Treasury	4.409%	-0.09
US2Y	U.S. 2 Year Treasury	4.699%	-0.124
US30Y	U.S. 30 Year Treasury	5.329%	-0.108
US3M	U.S. 3 Month Treasury	4.14%	-0.029
US6M	U.S. 6 Month Treasury	4.308%	-0.059

기사

Bloomberg: What Different US Midterm Outcomes Could Mean for Markets
미 중간선거 향방과 증시 여파

- 미국 중간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의 하원과 상원의 주도권 탈환 가능성이 커지면서 월가는 단기 주가 하락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상임위를 통해 최근 4년간 상승장을 이끈 AI 데이터센터 인프라에 대한 신규 규제나 청문회를 추진할 수 있어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 반면, 장기적 상승세를 전망하는 낙관론도 팽팽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S&P 500 지수는 예외 없이 중간선거 후 12개월간 상승했다.
- 또한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장이 꺼리는 증세나 강력한 규제 법안 통과는 어렵다는 점이다.



기사

JP 모건: AI capex boom raises financing wall
AI 투자 붐과 자금 조달 장벽

AI 투자와 수익성 불확실성: AI 투자는 지속되고 있으나 투자 대비 수익성(ROI)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확신은 부족하며, 사이버 공격 등 2차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자금 조달 제약: 방대한 자금 수요와 자본 비용 상승으로 시장 내 자금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대규모 국채 발행이 시장 자금을 집중적으로 흡수하면서, 민간 기업의 자금 조달을 압박하는 '밀어내기(구축) 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 적자 위험: 인플레이션 경로만큼이나 높은 금리와 대규모 채권 발행이 주요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연준 등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 효과는 약화되었다.

유럽의 정치·경제적 취약성: 프랑스를 중심으로 정치 및 매크로 리스크가 커지며 주변국으로의 위험 전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 심화: 미국은 저축, 중국은 소비, 유럽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일본의 신중한 통화 정책 정상화는 엔화 약세를 지속시켜 가계 구매력을 약화시켰다.

미·중 갈등 및 무역 긴장: 미·중 간 전략적 안정은 유지되나, 과잉 생산 및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로 무역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K자형 양극화 심화: 자산 격차와 포퓰리즘의 정착으로 사회적 갈등이 강화되고 있다.
금융 시장 변동성 위험: 비은행 금융기관(NBFI)의 비중 확대, 투명성 부족, 고레버리지로 인해 급격한 시장 가격 재조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동 분쟁과 에너지 안보: 이란 리스크로 유가 하단이 상승했음을 유념해야 하며, 공급망 및 운송 차질이 지속적인 위험 요소로 자리 잡았다.

포트폴리오 전략: 단기적으로 주식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유지하되 우량 자산(펀더멘털이 견고한 자산)과 달러 강세를 선호한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금 목표가를 기존 목표 수준으로 유지하나 달성 시기는 불확실하다.

기사

[오일]

WSJ: Oil Prices Rise More Than 2% as Attacks on Saudi Arabia, U.S.-Iran Risks Persist
계속된 중동 긴장에 유가 2%대 상승…브렌트유 $111 돌파

- 오늘 목요일 사우디 석유 시설 드론 공격과 미-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2% 이상 상승했다.
- 12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2.9% 오른 배럴당 111.96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는 2.3% 상승한 99.40달러에 거래됐다.
- 사우디 아람코 유전 시설을 겨냥한 공격과 인근 해역 유조선 타격 등으로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 확대됐다. 여기에 미국의 추가 항공모함 전단 배치 및 사우디 내 비필수 인력 철수 명령이 더해지면서 공급 차질 우려를 키웠다.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American Air Cuts Outlook Again, Sees Higher Fuel Bill This Year
유가 급등에 아메리칸항공 실적 전망 하향

- 아메리칸항공이 고유가 여파로 연간 실적 전망을 재차 하향하며 4분기 손실 폭을 확대 전망했다.
- 4분기 연료비가 전년 대비 2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회사는 수익성 대처 차원에서 운항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 한편 오늘 목요일 아메리칸항공은 4분기 주당 순손실을 시장 전망치(0.49달러)보다 높은 0.50~1.10달러로 제시했다.

기사

Bloomberg: Affirm, Sam’s Club Strike Exclusive Buy Now, Pay Later Deal
Affirm, 샘스클럽과 '선구매 후불제(BNPL)' 독점 계약

- 핀테크 기업 Affirm이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월마트 계열 샘스클럽과 BNPL 독점 파트너십을 맺었다.
- 향후 수주 내에 샘스클럽 웹사이트에 BNPL 결제 서비스가 도입되며, 2027년부터는 오프라인 매장으로 확대된다. 세부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 Affirm은 이번 협력을 통해 소비자가 보다 투명한 할부 조건을 바탕으로 지출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사

CNBC: American Express brings Airbnb bookings and rewards to AMEX Travel platform
아멕스 카드로 에어비앤비 예약… 포인트 적립도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x)가 자체 여행 플랫폼에 100만 개가 넘는 에어비앤비 숙소를 새로 추가했다. 기존 호텔 중심이던 숙박 옵션을 단기 임대 주택까지 대폭 넓힌 것.
- 최근 프리미엄 신용카드 시장의 혜택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자 회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맞춤 서비스 혜택을 내놓은 것이다.

- 이제 아멕스 카드 고객은 전용 여행 포털에서 에어비앤비를 예약하고 '멤버십 리워즈' 포인트까지 함께 쌓을 수 있게 된다.

기사

WSJ: Prada Sales Cool as Luxury Recovery Fades
프라다, 명품 시장 침체로 매출 성장세 둔화

- 명품 브랜드 Prada가 올해 1~3분기 누적 매출 45억 4천만 유로를 기록하며 성장세가 한풀 꺾인 모습을 보였다.
- 3분기 소매 매출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하는 데 그쳤다.
- Prada 측은 주력 시장인 중국 내 매장 방문객 수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중동 지역 역시 전쟁 여파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KMI 공급망 브리핑]

- 22일(현지시간) 이란 혁명수비대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 설치 및 오만 인근 해상 유조선 공격으로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유전 인근 드론 공격과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이어지면서 영·이집트·터키 등 우방국들이 사우디 영토 방어에 나섰다. 미국 역시 이란 그림자 선단 관련 기관 및 선박 9척에 대한 제재를 발동하며 압박을 수위 높이고 있다.
- 공급 차질 우려와 미국 재고 감소가 맞물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으며, 골드만삭스는 유조선 운임 폭등에 따른 추가 유가 충격을 경고했다. 반면 파나마 운하는 우회 화물 증가로 역대 최대 처리량을 달성하는 반사이익을 얻었다.
- 국내 시장의 파급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LNG 수입 노선이 북미산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아시아 LNG 가격은 4년 만에 30달러를 넘어섰다. 반면 울산 지역 수출은 석유제품과 비철금속의 호조에 힘입어 15년 5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유가 급등 여파가 업종별로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1D 1W 1M 6M 1Y 5Y Max



US 30	52,574.90	-282.2	-0.53%
US 500	7,650.00	-107.7	-1.39%
Dow Jones	52,547.86	-308.23	-0.58%
S&P 500	7,649.53	-107.64	-1.39%
Nasdaq	26,088.97	-613.89	-2.30%
S&P 500 VIX	19.24	+2.56	+15.35%
Dollar Index	101.668	+0.065	+0.06%

U.S. Treasurys

	COUPON (%)	PRICE CHG	YIELD (%)	YIELD CHG
30-Year Bond	5.125	1 1/32	5.334	-0.078
10-Year Note	4.625	9/32	5.018	-0.111
7-Year Note	5	29/32	4.916	-0.118
5-Year Note	5	5/32	4.838	-0.118
3-Year Note	4.875	25/32	4.781	-0.118
2-Year Note	4.75	24/32	4.708	-0.104
1-Year Bill	0	-2/32	4.419	-0.071
6-Month Bill	0	-1/32	4.329	-0.038
3-Month Bill	0	-1/32	4.148	-0.021
1-Month Bill	0	-1/32	3.965	-0.026

미국 USD	유럽 EUR	일본 JPY	중국 CNY	유로/달러	달러인덱스
1,327.20	1,485.60	844.19	198.83	1.1227	101.83
-0.30 (0.02%)	-5.32 (0.36%)	+4.80 (0.57%)	-0.08 (0.04%)	-0.0007 (0.06%)	+0.05 (0.05%)
10. 22. 23:50 실시간	10. 22. 23:50 실시간	10. 22. 23:50 실시간	10. 22. 23:50 실시간	10. 21.	10. 22. 10:41 10분 지연

환전고시환율 | 국제시장환율

미국 USD

1
1 달러

대한민국 KRW

1,327.20
1,327.20 원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